

당신의 세마포를 보았는가?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당신의
세마포를
보았는가?

CONTENTS

- 제 1장 천국에는 모두 흰 옷을 입습니다 11
- 제 2장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흰 옷을 못 입습니다 18
- 제 3장 천국은 여러가지 상급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24
- 제 4장 세마포는 천국의 옷입니다 28
- 제 5장 세마포는 베옷입니다 36
- 제 6장 세마포는 채색옷입니다 42
- 제 7장 세마포는 흰 옷입니다 46
- 제 8장 세마포는 빛난 옷입니다 50
- 제 9장 세마포는 맑은 옷입니다 60
- 제 10장 세마포는 거룩한 옷입니다 65
- 제 11장 세마포에는 장식이 있습니다 70
- 제 12장 세마포는 길이가 다릅니다 77
- 제 13장 세마포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입게 됩니다 82
- 제 14장 세마포는 오직 주님께서 입혀 주십니다 87
- 제 15장 옳은 행실이 있는 자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91
- 제 16장 옳은 행실은 곧 기름부움의 삶입니다 94
- 제 17장 기름부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99
- 제 18장 기름부움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110
- 제 19장 기름부움으로 통해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116
- 제 20장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121
- 제 21장 천국의 옷은 보혈로 씻겨야 합니다 129
- 제 22장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이 살아갑니다 134

성령님은 내게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나는 세마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싣던 것이 세마포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느 날 내게 세마포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마포에 대해서 네가 입을 열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성령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령님, 저는 세마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서는 그날 제게 세마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이 모두 마칠 때까지 자리에 일어

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7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성령님은 세마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 이곳 저곳을 살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마포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을줄 몰랐습니다. 세마포 책을 써내려 가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세마포는 더 이상 낯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숨겨져 있었던 보물을 캐내는 기분이었습니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국제성경연구원에서 가르쳐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훈련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의 내용대로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결코 사람에게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당신도 세마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마포와 천국



제 1 장

천국에는 모두 흰 옷을 입습니다

성

경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어야만 하는 옷입니다. 흰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거치지 못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도요한이 천국에 거하는 무리들을 보니 저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옷'은 스톨레(στολή)로써 겹옷이나 상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 끝까지 내려오는 상의를 말하는데 주로 제사나 의식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입는 제복을 가리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옷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히마티온(ἱμάτιον)입니다. 이것 역시 겹옷이나 예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스톨레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옷이라면 히마티온은 세상적인 옷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자색옷은 히마티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도 히마티온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겹옷을 깔았던 백성들의 옷도 히마티온입니다.

하지만 비록 히마티온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옷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옷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히마티온 역시 스톨레가 갖는 의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둘러 있던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 4:4)

여기에 사용된 '옷'은 히마티온(ἱμάτιον)입니다. 24장로들이 주님께 자신들의 왕관을 드리기 전에는 저들이 '히마티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스스로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렸을 때 그들의 옷이 '히마티온'에서 '스톨레'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을 더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 61:10)

이사야의 옷 역시 세상적인 겉옷이었지만 주님께서 세상적인 옷을 천국에 들어갈 의로운 옷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마티온(세상적인 옷)이 스톨레(영적인 옷)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날에 의인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들은 모두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흰 옷은 '이기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예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목숨도 내 놓을지도 모릅니다. 순교자가 바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엔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짐승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짐승의 표를 받아도 상관없겠지만,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선 안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릅니다. 물론 지옥의 고통보다야 덜 크겠지만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란 생각보다 훨씬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와 '예수 믿음을 잘 지키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의 대환난을 경험했을 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당당히 천국의 문을 열고 입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곱개 교회 중에 유독 사데교회를 향해 '흰 옷을 입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

그러시면서 사데교회 내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계 3:5). 주님은 '흰 옷'에 대한 의미를 매우 크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는 천국이나 지옥이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데교회를 향해 '흰 옷'을 입으라고 경고하셨는데 다시금 '흰 옷'을 입으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계 16:15)

누구든지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겨우 부끄러움 정도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흰 옷'을 입고 어린양 앞에 나아갈 성도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9-10)

위의 구절은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144000명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역시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성도는 모두 선택된 성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4장로와 144000의 성도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매우 성스러운 옷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합니다.

제 2 장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흰 옷을 못 입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복천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계 20:4)

우리가 알다시피 복천년은 7년 대환난이 있는 후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대환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었던 마귀는 붙잡힘 받아서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며 마귀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천년입니다.

마귀가 사로잡혀서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되면 그날부터 복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은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생활은 천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복스런 천 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천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대환난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환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륵이니라”(계 13:16-18)

짐승은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자신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많은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되어서 주님을 뵈는 성도들은 대환난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 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대환난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대환난의 고통은 짐승의 표로 인해서 오게 됩니다.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짐승이 무서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강제로 받게 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절대적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되면 생활이 고립되고 맙니다. 음식도 살 수 없을 뿐더러 입는 옷이나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윤활유를 사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아선 안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곧 짐승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우상숭배 이상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짐승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성도에 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 14:9-11)

짐승의 표를 받는 성도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불이나 유황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지옥에만 그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의 잔을 마시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함께 마셔야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성도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4시간 쉬 없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결코 쉬 없는 고난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계 9: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짐승의 옷을 입게 될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행실의 증거이며 결과입니다. 세

마포는 오직 순교자와 믿음의 인내자에게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세마포를 입지 못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 3 장

천국은 여러가지 상급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천국은 획일적이거나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 같이 살고 모든 사람이 똑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수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상(賞)'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은 상(賞)을 받을 것이고 적게 일한 사람은 일한 분량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상(賞)이라고 해서 같은 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상(賞)을 받거나 더 큰 상(賞)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賞)이 작거나 적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면 곧장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2)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할 곳도 많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천국에는 상급에 따라 거할 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거할 곳이 아주 많은데 각각의 거하는 장소가 서로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고전 15:41)

바울은 하늘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수없이 많듯이 그렇게 '영광'이 서로 다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듯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에도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고전 15:40)

바울은 '땅에 속한 자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음을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구별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말합니다.

베드로도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한 마디 거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곧 '영광'이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4)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곧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그 '영광'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언급처럼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영광'의 단계가 있으며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거처가 수없이 많다는 것은 '상급'의 종류가 여러가지라는 사실로 받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세마포의 종류와 색이 여러가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 4 장

세마포는 천국의 옷입니다

환

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상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 주기 위한 일상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니는 그네를 탄다든지 일상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게합니다. 그래서 환상은 영분별 하는데 매우 유용한 은사입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와 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마포에 대해 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을 때 목사님은 저희에게 '내가 어떤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통해 목사님의 세마포를 보았는데 정말로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세마포는 황금색이었으며 가슴 부분에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세마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시작했는데, 각 사람의 세마포가 똑같지 않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옷은 얇은 흰 세마포였지만 또 다른 사람의 옷은 금빛 나는 세마포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옷에는 각양 보석이 박혀 있었으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의 길이 또한 달랐습니다.

처음 성령님으로부터 세마포에 대한 글을 쓰라는 명을 받았을 때에는 세마포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마포에 대한 책이 출판되어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

었습니다. 세마포에 대한 책이 출판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마포에 대한 세미나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세마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할 때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세마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마포가 중요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변화되듯이 세마포의 모습도 변화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되는 것은 세마포의 색입니다. 영성이 떨어질 때는 세마포의 색이 밝고 빛난 색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한 색으로 변합니다.

세마포를 알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영성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영성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이 깊은 부부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세마포를 입지 못합니다. 오직 세마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일수록 세마포의 모습은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교회 직분 때문에 세마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나 권

사라고 해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세마포의 모습이 형편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세마포 모습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세마포는 매우 어둡고 칙칙한 색깔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사람의 세마포는 확실히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세마포는 왕 같은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세마포는 고귀하고 순결한 세마포입니다. 장군처럼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어도 천차만별입니다. 무릎 바로 밑에까지 내려온 세마포보다는 발까지 내려진 세마포가 훨씬 값진 것입니다. 발이 보이는 것보다 발까지 덮는 세마포가 더 귀합니다.

장식품이 달려 있는 세마포는 그 사람의 행실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그 사람의 세마포에 많은 장식품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장식품만 봐도 그 사람의 업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거나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입고 있는 세마포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세마포의 색깔, 길이, 장식품 등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해 줍니다. 세마포는 천국에서 각 사람의 위치와 등급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마포를 보면 각 사람의 위치와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세마포를 통한 각 사람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놓고 평가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체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천국에서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자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못 나고 못 배우고 못 가졌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님은 두 랩돈을 연보궤에 바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과부는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과부가 가장 낮은 자였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저 천국에서는 주님 품에 안겨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 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만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이려고 현금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사람 때문이요 전도하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을 켜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매우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자기의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어떤 옷인가?



제 5 장

세마포는 베옷입니다

에스겔은 천사들이 베옷을 입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베옷은 곧 세마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천사들도 한결같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즉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좇아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찻더라 그들이 들어 와서 돛 제단 곁에 서더라”(겔 9:2)

베옷은 세마포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곳에 언급된 베옷은 바드(גַּד)로써 흰 세마포(white linen)를 뜻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다윗과 궤를 멘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겹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 에봇을 입었고”(대상 15:27)

다윗은 <베옷>을 입었고 장막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마포 겹옷>을 입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들의 옷이 서로 다릅니다.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것은 부츠(\$WB)였습니다. 이것은 올리브 곱고 값비싼 흰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27장 16절에는 이것을 값비싸고 사치스런 수입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츠’ 세마포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즐겨 입었다

고 알려지고 있습니다(에 1:6). 바사왕 앞에 나아갔던 모르드개는 바로 이 ‘부츠’ 세마포를 입고 나갔습니다(에 8:15).

하지만 다윗이 입었던 베옷은 ‘바드’ 세마포였습니다. 다윗이 입었던 ‘바드’ 세마포는 사무엘도 입었던 세마포였습니다(삼상 2:18). 베실로 만든 세마포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출 26:36)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털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성막문 뿐만 아니라 휘장을 덮었던 덮개에도 사용되었고 성막 전체에 이 네 가지 실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네 가지 실 중 하나가 <베실> 곧, 세마포였습니다. 이 네 가지 색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마포는 황갈색으로부터 해서 흰색까지 어느 정도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지만, 섬유 입자 자체가 너무 둥글어서 여간 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입자가 둥글다는 것은 천국의 성도들의 성품이 둥글스러워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가 나고 거친 성품은 천국의 성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세마포는 모두 흰색인데 베옷 세마포 중에서 크림색을 띤 흰색 세마포가 가장 으뜸입니다. 신약시대에 언급되고 있는 세마포의 헬라어는 부시노스 (βύσσινος)인데 영어로는 fine linen 으로 표기되고 있을 정도로 특질의 세마포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마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베옷입니다. 성경에는 베옷, 베실, 혹은 삼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베옷은 성도의 성품을 잘 표현하는 재질의 옷입니다. 베옷은 매우 질겨서 좀처럼 찢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에게는 강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마땅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심한 핍박이 오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따르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베옷은 이러한 성도의 인내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옷은 햇볕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옷감은 햇볕에 오래 놓게 되면 탈색이 되거나 섬유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베옷은 강한 햇볕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니다. 이것은 천국의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함을 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주님과 맺은 언약을 내 썩개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잘 섬기다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썩개친 여인들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빠져 세상과 벗어나며 살아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천국 성도가 되기 위해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짐승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믿음을 저버렸지만 마지막 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기는 자>에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베옷을 입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베옷은 광택이 있습니다. 옷감에 빛을 내기 위해서 뭔가 바르거나 입히지 않아도 스스로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성도는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천국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를 이미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어두움을 향해 빛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배움은 흡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것은 모든 허물을 덮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사소한 것에 화를 내거나 남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바다가 물을 덮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 줘야 합니다.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눅 6:29)

흡수성은 포용하는 성품입니다. 주님은 한 쪽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흡수성입니다. 형제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은 천국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 6 장

세마포는 채색옷입니다

야 곱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하란에 도착했을 때부터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요셉은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참으로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 올 때 에서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창 33:2)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행여 마주치면 죽임을 당할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피를 굴렀습니다. 가장 먼저 레아와 라헬의 여종으로 야곱의 부인인 된 두 부인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 다음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뒤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자신과 함께 남게 했습니다.

다른 세 부인과 아들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힘으로써 극치에 다다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창 37:3)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옷>은 팔 끝과 발 끝까지 내려온 고급 겹옷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파스 케토렛>입니다. 혹자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케토렛(**תכנת**)을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일반 겹옷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채색>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스(**פס**)로써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평평한 면’이라는 뜻이 있어서 <채색옷>은 손끝과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겹옷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 버전에서는 <채색옷>을 ‘여러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옷’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색옷>은 손과 발끝까지 길게 내려진 여러색깔의 세마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채색옷은 세마포의 직물이었던 아마포로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가지 색으로 만들어진 세마포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매우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 옷은 매우 고급스러웠기 때문에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입었습니다. 다윗의 딸 중 하나였던 다말공주도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채색옷을 입은 다말공주를 말하면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삼하 13:18)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이 채색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된 남편과 후계자인 장자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실 옷도 채색옷입니다. 단순한 한 색깔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마치 요셉에게 입혀졌던 채색옷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듯이, 우리에게 입혀질 채색

옷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님께서 <옷>을 입혀 주심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옷 입혀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 61:10)

제 7 장

세마포는 흰 옷입니다

성

경에 언급되고 있는 세마포는 모두 흰색입니다. 사도 요한은 시현으로 천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의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묘사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흰 세마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계 19:14)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두 천사 역시 흰 옷을 입었습니다. 천사들의 옷이 모두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면 흰 세마포는 천국의 옷임이 틀림없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요 20:12)

세마포가 흰색이었던 것은 천국을 대표하는 색이 흰색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을 보았으며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흰색임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계 20:11)

천국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사는 곳입니다. 사도요한은 24 장로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은 흰 세마포였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 4:4)

세마포는 반드시 흰 색이어야 하며 색깔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세마포가 흑색이거나 회색이라면 그 사람의 세마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옷을 더럽힌 것입니다.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각종 죄악들로 흰 옷이 더럽게 물들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계 3:4)

예수님은 사데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곳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 증인의 삶을 살아간 모든 성도들은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세마포는 모두 흰 세마포가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

세마포는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옷입니다. 그 옷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천국은 <흰 옷>입은 자에게 성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제 8 장

세마포는 빛난 옷입니다

세마포는 빛이 납니다. 세마포 그 자체에서도 빛이 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의 빛은 하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빛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계 19:8)

하나님께서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으로 인해 땅이 빛을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겔 43:2)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매”(계 21:11) 항상 천국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빛을 내는 해나 달이 필요없고 가로등과 같은 등불이 필요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계 21:23)

우리가 천국에 거할 때 결코 밤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온 천국을 비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계 22:5)

하나님께서 빛으로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는 온 천국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박국이 예언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합 2:14)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박국의 그런 외침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이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빛은 온 천국을 비출 것이고 천국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날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날 것입니다. 천국에 거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마 13:43)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시 37:6)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 80:3)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세마포가 더 큰 빛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방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더 큰 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구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세마포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똑 같은 세마포가 될 수 없습니다. 세마포의 빛은 저마다 다른 빛을 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햇빛과 같은 밝은 빛을 내는 세마포를 입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어둡고 칙칙한 빛을 내는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강하게 체험하면 할수록 세마포의 빛은 더 밝게 빛이 납니다. 천국의 세마포는 이 땅에서의 믿음생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더 많은 공력을 쌓은 사람들에게는 더 빛나는 세마포가 입혀질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증거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겨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출 34:29)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재차 증거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출 33:22-23)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나 강렬했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영광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덮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33:11)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성막에서 나올 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모세의 세마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세마포는 엄청 빛나는 세마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처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날마다 지성소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출 34:34-35)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모세는 지성소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엔 늘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하도 광채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기를 두려워했습니다(출 34:30).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만 수건을 벗었습니다.

당신도 지성소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언약궤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당신의 온 몸과 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
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
라 하셨느니라”(히 8:5)

모세가 만든 성막은 천국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으실 것에 대한 '본(Sample)'을 보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가 있으면 하늘의 성막에도 지성소가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으니 반드시 천국에 있는 지성소에도 언약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 11:19)

사도요한은 하늘의 성막을 보았습니다. 성막이 열리니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천국의 성막과 모세의 성막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는 더 이상 이 땅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듯이 천국에 들어갈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생활을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없어 못하고 사모함이 부족하여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저 천국에서 입는 세마포의 빛이 밝게 빛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모세는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대화를 나눴지만 언약궤 안에 들어갈 때에는 더 없이 큰 하나님의 영

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궐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을 기억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 왔던 언약비석과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만나 향아리입니다. 이 세가지는 천국의 본질이며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약비석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골자는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성경말씀입니다. 모든 언약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 외에 있는 언약을 믿지 마십시오. 듣지도 마십시오.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십시오. 그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의 지름길이 훤히 보일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천국에는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보증서요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만나 향아리는 사랑입니다. 40년간을 한결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절대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지만 천국에서는 사랑뿐입니다. 우리의 원수 되고 죄를 가져다 주었던 사탄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더

이상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기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9 장

세마포는 맑은 옷입니다

사 도요한은 천사의 세마포가 맑은 것을 보았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계
15:6)

천국은 전부 맑은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맑으며(계 21:18), 성의 빛이 맑으며(계 21:11), 성의 길도 맑습니다(계 21:21). 맑은 것은 전부 천국의 요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는 생명수도 맑습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계 22:1)

맑은 생명수는 지금이라도 당장 한 그릇 떠 마셨으면 하는 충동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하여 생명수를 떠 마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생명수에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천국에 있는 생명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구성된 것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수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물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8)고 말씀하신 <생수>는 우리가 아는 물(water)가 아니라 성령(Holy Spirit)

을 의미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곳의 버림받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주는 물>은 그 여인이 생각했던 물이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단순한 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요 4:15)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이런 반응에 대해 너무 여인을 바보스럽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들 중에는 여인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한 여인에게 정확히 <생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리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수>를 진짜 물로 이해했던 여인처럼 반응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생명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water)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생수>가 <성령>을 의미하듯이, <생명수>도 <성령님>과 연관된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거하는 자는 정결한 성도들입니다. 저희는 모두 맑은 물로 씻음 받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속 마음이 흰히 드러나 보여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정결한 몸과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겔 36:25)

천국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속을 열어서 다 살펴 보더라도 책망 잡힐 것이 없을 정도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결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맑은 세마포를 입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명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모든 제사장에게 물두명에서 몸을 씻어 죽임을 면하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물두명>에서 날마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출 30:20)

제 10 장

세마포는 거룩한 옷입니다

천국에서 입는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은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저들의 삶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거룩함을 보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시 110:3)

우리가 갈 천국의 중심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입니다. 그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이라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계 21:10)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피와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이름이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그 성에 사는 사람 자체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가장 높은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 붙어 왕 노릇 하리라”(계 20:6)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성에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을 복천년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동안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왕 노릇>이라는 말 자체를 세상의 왕처럼 군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왕 노릇>이라는 말은 실제로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레 16:4)

모세는 모든 제사장에게 세마포로 예복을 지어 입히라고 명하였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모세의 명에 따라 속옷부터 겹옷, 그리고 띠와 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세마포로 지어 만들어 입었습니다.

다. 모세는 세마포 옷을 가리켜 <거룩한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마포 그 자체가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상징적인 것이며 천국의 <모형>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세마포를 입는다고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세마포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니까 세마포를 입는 것이지 세마포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해 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6)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중 <거룩>이 절대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4)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전체에 셀 수도 없이 <거룩함>에 대해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거룩>에 대한 구절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정도라고 말할 해도 과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이 이 땅이든 천국이든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

니라”(수 5:15)

모세를 뒤 이은 여호수아 역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란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들었던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비단 모세나 여호수아만이 들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가야 할 모든 성도라면 지금도 <거룩하라>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거룩한 옷이고 오직 거룩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의 권리이며 축복입니다. 아무나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옷을 입는 법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의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러운 짓을 행한 사람은 그대로 더러운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를 행한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한 대가를 지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대가를 지불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성에 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11 장

세마포에는 장식이 있습니다

세마포에는 장식품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는 가슴에 금띠를 띤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계 15:6)

사도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도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계 1:13)

가슴에 금으로 된 띠를 띤 것으로 봐선 옛날 우리나라 관리들이 입었던 예복을 연상케 합니다. 관리들이 궁궐을 드나들 때 입었던 예복에는 가슴부분에 띠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입고 계신 세마포에도 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금으로 된 띠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값비싼 금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서는 금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최대한 많이 모아 성전 곳곳에 금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금은 영적으로도 귀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은 사데교회

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계 3:18)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에도 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대부분의 성물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특히 정금등대나 속죄소는 100% 정금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순금 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 패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욥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으로 단련하신 후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변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금등대(성령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속죄소(예수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세마포에는 비단 가슴에만 띠를 띠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단 10:5)

다니엘은 금식 중에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계셨으며 허리에는 정금 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우바스 정금은 정금 중 가장 최상품의 정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바스는 금을 제련하는 제련소를 말하는데 최상품의 금을 생산하는 제련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바스에서 만들어진 금으로 된 띠를 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의 금은 인간이 만든 금에 비해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세마포에는 장식품이 있습니다. 모세시대에 제사장도 장식이 딸린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레 16:4)

성경을 읽어 보면 제사장에게 입혔던 옷과 장식품이 얼마나 복잡하고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세마포 속옷이 있었으며 세마포 고의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띠를 띠었고 세마포 관을 썼습니다. 아래 구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만들어 입혔던 세마포 예복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하게 장식을 달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 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

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출 39:22-26)

만약에 모세시대에 금이 풍부했다면 띠를 정금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관도 정금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모든 의식과 형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이 천국의 성막의 모형이듯이 모세시대의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역시 천국의 세마포를 본 따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세마포의 장식 중에 두드러진 또 다른 장식품은 면류관입니다. 사도요한이 보았던 환상에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쓰고 계셨던 면류관은 <많은 면류관>이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계

19:12)

주님께 경배를 드렸던 24장로들에게도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24 장로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이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십 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계 4:10)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이처럼 면류관은 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저들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것은 곧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4)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며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제 12 장

세마포는 길이가 다릅니다

사도요한이 환상으로 본 사실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했을 때 서두에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계 1:13)

일곱 촛대 사이에 주님이 사도요한에게 나타나셨는데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발에 끌릴 정도의 길이라면 발을 감출 정도로 긴 옷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의 길이가 왜 그리 중요하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마포는 그 색깔과 장식과 함께 길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마포의 색깔과 장식과 길이를 통해 그 사람의 상급이나 믿음의 척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천사의 세마포는 <희고 깨끗하다>라고 표현했지만, 또 다른 천사의 세마포를 언급할 때는 <맑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마포에는 정금 띠가 있었으며 그 띠는 가슴에도 있었고 허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는 길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마포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전부입니다.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 세마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을 전하면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이단 정죄를 받기 십상입니다.

가끔씩 ‘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할까?’ 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 비해 너무나 짧은 기간인데, 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적을까?

항상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록 성경이 천국에 대해 아주 작은 분량의 설명만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어진 말씀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그려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마포에 대한 부분만큼은 성령님께서 들려 주실 성경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하지만 매번 깨닫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들려 주실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마포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제 13 장

세마포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입게 됩니다

세마포는 천국에서 입는 옷입니다. 천국에는 누구든지 세마포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세마포는 '흰 옷'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희고, 빛나고, 맑고, 깨끗하며, 거룩한 곳입니다. 세마포는 천국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도 희고, 빛나며,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는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에게 세마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천국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세마포가 아름답거나 부유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입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를 입어야만 천국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마포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입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억지로 세마포를 입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평생을 부자로 살았고 나사로는 평생을 거지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날에 죽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이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절대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전체 내용이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유의 맨 끝자락에 걸려 있습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

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
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눅 16:30-31)

부자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간 사
람들이 다시금 지상에 내려갈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지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은 자신 스스로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자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모
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던 관계로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성
경을 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성경전체로 받아 드
려야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상급은 오로지 이 땅에서의 행실에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는 결코 자신의 상급을 바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모든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게 될 지는 아무도 모
릅니다. 다만 '자기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자기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영원한 세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입게 될 세마포
가 맑고 깨끗하고 여러 장식품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
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믿
음을 키우기에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힘든 일도 많고 유혹도 많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당신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
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 땅에서 믿
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천국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히 11:26) 이는 저들이 “상주시는 이를” 바라 봤기 때문입니다.

제 14 장

세마포는 오직 주님께서서 입혀 주십니다

세

마포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직 주님께서 세마포를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 세마포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마포를 입기 위해선 세마포를 입히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
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계
19:8)

주님께서서는 오직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사랑해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어줬으며,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만큼 바로왕은 요셉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창 41:42)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저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직접 옷을 지어 입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을 명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마포로 된 옷을 정성껏 만들어 입혔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아론의 옷을 입혔듯이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출 28:2)

세마포를 주님께서 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인간을 경배합니다. 목사를 우상처럼 숭배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잘 난 사람을 좋아하며 따라 다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주님께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마 15:8-9)

요즘 같이 말 잘하고 잘 떠들어 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적으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요즘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하는”시대가 된 듯 합니다(딤후 3:5). 주님의 명령대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주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사람의 계명에 따라 교훈을 삼아 잘못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떡 줄 사람에게 잘 보여야 정상적인 것인데, 떡 줄 사람을 외면하고 떡 빼앗아 갈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마포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으면 세마포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히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제 15 장

**옳은 행실이
있는 자에게
세마포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옳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세마포를 입지 못할 것이며,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다 하더라”(계 19:7-8)

천국을 어린양의 혼인잔치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은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어린양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양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는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잘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거나 주님을 외면한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옳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옳은 행실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며,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할 것이고, 어린양의 신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옳은 행실'은 천국문을 여는 초대장이 될것이고 합법적인 신분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요즘엔 무비자로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합법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으며 어린양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 16 장

옳은 행실은 곧 기름부음의 삶입니다



은 행실이 있어야만 세마포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옴은 행실'에 대해서 아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옴은 행실'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
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
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
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
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
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
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
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
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
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
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
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마 25:1-12)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명의 처녀 중에 다섯은 슬기롭

고 다섯은 미련하였습니다. 모두 등(lamp)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등은 신부의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신랑을 맞는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을 신부는 마땅히 등에 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부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등이라면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등에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등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이 없다면 등은 결코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물론 품질이 좋은 기름일수록 등불의 모양이 더 아름답거나 오래 유지가 될 것이지만, 기름이 없다면 그 어떠한 등불 자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등'은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그 '기름'은 곧 성령의 기름부음입니다. 성령세례만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신부의 세마포를 입지는 못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신부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삶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름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옴은 행실'입니다. 옴은 행

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못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위한 특별한 헌신이나 교회를 위한 헌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거나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언급된 '옳은 행실'의 원문을 찾아 보면 δικαίωμα(디카이오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δίκαιος)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주로 '의(righteousness)'라고 번역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마 6:1)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물론 이 세가지 외에도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언

급되고 있어서 이곳에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한 구절만 들자면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제 17 장

기름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천국도 지으셨을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든 것이고 이것이 천국의 전체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천국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하려면 '기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등'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기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에는 모두 '기름'이 함께 했으며, 뭔가를 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도 '기름'은 발라지고 부어져야만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설명하실 때 반드시 '기름'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출 28:41)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아론 스스로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론의 자녀들 스스로 거룩하게 되지 못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법을 제정하였으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의식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래 구절은 모세가 제정한 법의 한 부분입니다. 문둥병자는 병이 나아 자신의 부정함을 씻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병이 나은 문둥병자에게 피 뿌리는 의식 뒤에 기름부음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문둥병자의 병을 깨끗이 함을 의미했습니다. 기름부음은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
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레 14:28)

기억하십시오. 문둥병자 스스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둥병자 스스로 약을 먹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문둥병이 사라졌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문둥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나음을 인식하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둥병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왜 '기름'을 바르면 제사장이 거룩해 지고, 문둥병자가 거룩해 지는 것일까요? 아마도 '기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함께 하는 상징적인 도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너무도 많은 부분에 '기름부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기름부음으로 거룩해진 제사장도 성막과 관련이 있으며, 기름으로 거룩해진 문둥병자도 성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부음은 성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서 일어나고 앉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민 14:14)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막에는 매우 순결한 기름만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일곱촛대에는 1년 365일 감람유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으며, 밝은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순결한 감람유는 성도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성도가 순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사람은 불순결한 감람유가 되어 버림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도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고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람유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상을 간직하거나 섬기는 것은 불순결을 의미합니다.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과 같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괴팍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라도 바람 피는 배우자를 예쁘다 칭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결국 버림까지 받게 될 무서운 죄악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가 벗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1-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서 모두에게 세마포를 입히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끔찍한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마귀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가 없어도 죄도 마땅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마귀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당신도 아

닙니다. 오직 마귀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떠나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보좌로 올라 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십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9-11)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 사정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천국에 거하는 것과 같은 느낌까지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성령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기름의 성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은 불을 태우며, 빛을 내고, 다른 불을 만들어 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빛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빛난 불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당신에게 접근하지도 못할 것이며 당신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사에는 기름을 태워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창 4:4)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되나 아벨의 제사는 의로운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가 의로웠는지, 왜 가인의 제사는 의롭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윗 구절에서 '양의 첫 새끼'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 아벨은 귀한 첫 새끼를 주님께 바쳤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정도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의로운 이유를 알려면 아벨 시대에만 국한하지 말고 적어도 모세시대 정도는 넓게 봐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세시대 때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성막에서는 매일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레 3:16-17)

짐승의 피와 기름이 하나님 것임을 아예 법으로 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피와 기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피뿌리는 의식과 기름부음의 의식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며 기름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부음'이 있을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었던 멍에는 기름으로 인해 부러질 것입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
지리라”(사 10:27)

천국에 가면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천국엔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장소가 될 것이며, 그 어떠한 멍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계 21:4)

제 18장

기름부음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

리에게 '기름부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 래야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 다.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 며”(사 61:1)

윗 구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기름부음'입니다. 여호와와 신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세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기름부 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큼니다. 다른 차 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기름부음'이 없이는 주님의 사역 을 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대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요한복음 3장). 주님께서 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지만 '성령'은 성령세례를 뜻합니다. 무엇이 물세례고 무엇이 성령세례입니까? 물세례는 자신의 지은 죄를 완전히 물 속에 담귀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홍해 바다 밑을 건넌 것과 같이 물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해방을 선포하게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3-4)

성령세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사실을 믿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은 세마포를 입고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함으로써 하루에 수 천명씩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행 2:38)

성령세례는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한 후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세례가 임할 수 있으며 물세례 후에 성령세례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선 두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마포를 입고서 천국에 들어 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상급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천국에는 여러 영광들로 가득 찬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구원만 받으면 되요, 그렇게 좋은 상급은 필요 없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은 겸손보다는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감사

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예의입니다.

실제로 천국은 수많은 상급들로 이뤄졌습니다. 그것이 '해의 영광'이나 '달의 영광'으로 이름하든지, 아니면 '별의 영광'이나 다른 용어로 이름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수없이 많은 상급과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으로 거하실 것입니다. 영광은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빛은 거룩한 성을 비추고 온 천국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그저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과 지금 살고 있는 성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살게 될 성도들이 함께 살게 될 거대한 곳입니다. 아마 천사들과 천군들이 함께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 전체 다 똑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듯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급의 차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체험해 본 성도라면 “나는 천국만 들어가면 되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좀 더 강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마포의 의미입니다. 천국에는 누구나 다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세마포는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모양새도 다릅니다. 장식품도 다릅니다. 세마포를 통해
저들의 상급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19 장

**기름부음으로 통해
더 큰 상급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때 주님의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61:3)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의 사역을 왕성히 행할 수 있습니다. 기름부음이 없이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찾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자에게 화관을 씌워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한단 말입니까?

기름부음은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름을 전해 주기도 하며, 찬송으로 옷으로 저들의 근심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또 다른 의의나무로 세우게 되며,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
셨음이라”(행 10:38)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름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에 주님께서 '기름부음'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
한 사역을 행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불경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
이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는 평생토록 단 한 차례도 하
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인간으로 사셨습니
다.

“목사님, 그건 말도 안됩니다. 인간으로 사셨다면 어떻게 그런
능력들을 행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 아
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으로만 사셨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끼셨고,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셨
습니다. 이것은 주님 스스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과 능력'이 필요
하셨습니다.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
셨을 때에도 '성령과 능력'이 필요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도 '성령과 능력'이 필요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은 성령세례와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세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능력이 발산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만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령사역자들을 통해 병든 자가 낫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은 이처럼 놀라운 사역을 하도록 허락된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성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세례만 가지고는 천국에는 들어갈지라도 큰 상급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내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권능'을 받아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권능'을 받았습니까? 그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세례만 받은 상태입니까?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마포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맑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다운 세마포는 입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만이 주님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능력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제 20장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한은 어떻게 저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적어도 '흰 옷'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에는 대단한 인내가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사도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서는 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 구절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 14:11)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밝히 드러납니다.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를 할 것이고 짐승이 주는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울이 언급한 '믿음' 같은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고전 3:12-14)

바울은 진실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력이 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동안 사람들이 세워놓은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들이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공력의 불'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입니다. 모든 성도는 짐승에 의해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시험에서 믿음을 인정받은 성도들은 각각 저마다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행위가 모두 교회를 위한 외형적인 '수고로움'입니다. 그 '수고로운 행위'에는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 모임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외형적인 행위는 이미 교회 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행위를 무시하거

나 등한시 하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외형적인 행위로는 검증되지 못합니다. 오직 침송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모임에 잘 참석한 것이 침송의 시험에서 잘 통과할 수 있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침송의 시험을 잘 이겨낼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게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는 결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나 전통에 의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송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과 행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잘 말해 줄 것입니다.

짐승은 우리에게 생명을 놓고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놓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짐승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짐승이 빼앗아가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뿐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

예수님께서서는 말일에 짐승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짐승에게 물림을 당하고 찢김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육적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두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육적인 사망이 왔고 영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차면 육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죽음은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적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롬 5:17)

더 이상 아담이 가져온 영적 사망은 믿는 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 더 이상 영적사망은 없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선 우리도 영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침송은 우리에게 표를 줄 것입니다. 침송의 표입니다. 누구든지 침송의 표를 받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누구

든지 육적인 사망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좀더 살아 보려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육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 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1)

여러분의 믿음을 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내 보일 표가 없습니다. 오직 지옥의 문이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계 19:20)

당신의 '믿음'의 격을 높이십시오. 하찮은 '행위'에 연연한 '믿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적어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유용하게 증거물로 내 놓을 '믿음'이었지, 이 땅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는 증거물의 '믿음'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21 장

천국의 옷은 보혈로 씻겨야 합니다



한은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옷이 깨끗해 짐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으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이곳에 언급된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두루마기'나 '옷'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하며, 그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옷을 빠는 이유는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옷을 빠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병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옷을 빨아야 하는 것은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평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서 합니다. 군인들도 평상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복을 입습니다. 예복이 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평상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을 얻게 합니다. 예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합니다. 신부는 두 명이지 않습니다.

니다. 결혼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신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가짜 신부가 신부 예복을 입으면 모든 사람들은 가짜 신부가 진짜 신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복이 주는 '자격'때문입니다. 예복은 결혼식 신부가 되게 하고, 잔칫집의 손님이 되게 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시니라”(마 22:11-13)

예수님은 천국을 임금이 베푸는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이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잔치에 참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금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잔칫집에 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들을 잡아 능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일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종들을 보내 길 가에서 아무나 붙잡아 잔칫집에 데려 오라 하셨습니다.

드디어 잔치는 시작됐고 임금이 잔치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며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예화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청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었으나 저들의 강박함으로 인해 '이방인'이 잔칫집에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방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에게 내려진 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 3:6)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후사의 신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바깥 어두움'은 지옥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
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
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 7:14)

어린양의 피는 우리의 옷을 깨끗케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롬 5:9)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유물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인식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구속된다고 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5)

제 22 장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이 살아갑니다

천

국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죄인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나라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함께 하면 양반이 힘든 것이 아니라 상놈이 힘든 것입니다. 상놈은 상놈과 함께 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누워도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밥을 어떻게 먹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작 힘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담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상태라면 이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죄의 뿌리가 없습니다. 죄를 가져다 주는 마귀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상 마귀로부터 옵니다. 지극히 작은 죄에서부터 아주 큰 죄까지 모든 죄는 마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죄 역시 마귀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브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했습니다. 이브에게 건네준 마귀의 유혹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창 3:6) 선악과였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도 먹음직스러운 '떡'과 보암직스러운 '성전에서 뛰어 내림'과 탐스러운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마 4장). 사도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요일 2:16) 였습니다.

천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은 '죄'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상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땐 나 자신을 원망하기 이전에 먼저 죄를 가져다 주는 마귀를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롬 3:23).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롬 6:23).

당신의 세마포를 보았는가?

초판발행 2014. 12. 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হল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79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더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